

## 부모가 알아야 할 자녀 진로지도의 핵심

### 올바른 진로발달의 핵심, 긍정적 자기인식

다름을 인식하지 못하는 유아기와 달리 초등학교 시기부터는 피부색이나 외모 등의 이유로 놀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주변의 불편한 시선으로 인해 자녀가 주눅이 들거나 위축되면 부정적 자기인식이 형성되기 쉽습니다. 이때 자기 자신을 믿고, 사랑하는 마음의 중요성을 설명해주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개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글로벌 인재로서 얼마나 큰 강점인지를 설명해 주면 좋을 것입니다. 부모의 자존감은 곧 아이의 자존감이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 스스로 그러한 자존감을 갖는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다문화 환경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다문화 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녀는 훨씬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자랄 것입니다.

### 의사소통 능력은 학업과 진로 준비의 출발점

해외에서 태어나 중도에 입국하거나, 가정에서 부모의 모국어를 주로 써왔다면 우리 자녀는 학교에서 언어 장벽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미숙한 언어는 의사소통에 제한을 주고, 이는 대인관계 형성의 어려움이나 학업중단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교육부와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정 자녀가 한국어를 제대로 익힐 수 있도록 교육과 상담을 비롯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국가·지역의 지원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자녀가 언어적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누리콜센터 1577-1366)

### 진로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이끌어주세요

초등학교 자녀는 진로를 결정하기 위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들어본 적이 있는 직업을 장래희망으로 이야기합니다. 변화의 가능성이 큰 이 시기에는 진로 목표를 정하기보다는 자녀가 보다 많은 진로 정보에 노출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자인 카탈린 카리코, 테슬라 창업주로 알려진 일론 머스크, 가상화폐 이더리움을 만든 비탈릭 부테린 등, 다문화환경에서 성장하여 세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다양한 롤모델을 찾아보면서 자녀와 진로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다문화가정은 비(非)다문화가정에 비해 진로와 교육 정보 접근이 쉽지 않고 문화적 차이로 인해 교과과정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지역의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찾아가보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해 봅시다.

\*참조: 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학생유형별 진로상담(지도) 운영 매뉴얼>  
<다문화학생 진로·진학 지도를 위한 교사용 매뉴얼>

글로벌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한국 또한 다양한 국적과 문화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사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시기 우리 자녀의 진로지도에 대해 꼭 기억해야 할 것에 대해 알아보시다.



진로한결음데

### 결혼 이민자 학부모를 위한 한국생활 안내

다문화가족지원포털 다누리는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의 한국생활 정착을 돕는 안내 영상을 12개 언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녀교육부터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포털 다누리(liveinkorea.kr) >  
한국생활안내



#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위한 진로코칭 사례

'진로코칭'은 내면에 깊숙이 숨어 있는 잠재력을 함께 찾아내고 발전시키는 과정입니다. 진로코칭을 통해 자녀가 가진 능력과 장점을 키워준 사례에 대해 알아봅시다.

자녀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자신에게 놓여진 상황을 극복하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아래에 있는 예시 사례를 활용해 진로코칭을 해보세요.



## 부모의 모국어도 함께 배워요



친구들은 아무도 몽골어를 모르는데  
내가 왜 몽골어를 배워야 해요?



친구들은 영어 공부를 하려고 학원을  
다니지? 하지만 너는 굳이 공부하지  
않아도 외국어를 한 가지 더 할 수 있단다.  
그건 우리집의 아주 큰 장점 중 하나란다.



몽골어를 배워서 뭘 할 수 있는데요?



몽골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에 취업하거나  
통역 및 관광가이드 등 다양한 일을  
많이 할 수 있어. 몽골에 있는 친척과도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게 되면 좋지  
않을까?

### 실천 사례

지자체 다문화담당관으로 일하던  
몽골 출신의 출○○ 주무관은  
자녀가 몽골어와 한국어를 모두 구사할 수  
있도록 양육했습니다.

출처: 데일리안, 2016. 8. 2. <어수룩한  
'다문화교육용'몽골동화 바로잡은 '몽골 아줌마'>



## 부모의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키워요



엄마, 다음주에 우리 학교에 오신다고  
들었어요.



응, 너희 담임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캄보디아 전통춤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하셨어.



우와! 엄마가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대단해요!



그럼, 다음 달에는 주민센터에서  
캄보디아 전통음식 요리 수업도  
하기로 했단다.



캄보디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도 사람들에게 잘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 실천 사례

캄보디아 출신의 결혼이주여성  
공○○씨는 자녀 학교의 통역  
업무를 시작으로 다문화 관련 활동을  
활발하게 참여하면서 자녀와 본인 모두  
자부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출처: 제10회 다문화 실천사례 교육수기



## 지역공동체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요



지역 가족센터에서의 첫 수업 잘  
들었니?



네! 이해를 다 못한 부분에 대해 질문을  
했더니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재미있게  
수업을 했어요.



한국어 수업이 재미있었다니 정말  
다행이구나.



그리고 내일 오후에는 선생님이 직접  
집으로 방문해 수업을하기로 했어요.



그래? 그럼 내일 선생님을 뵙고  
궁금했던 부분을 상담하면 되겠다.

### 실천 사례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난  
임○○○ 학생은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에서 한국어를 배우며 수업에 재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출처: 2021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활동수기 공모전 자료집

### 진로노하우

서툰 한국어로 수업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자녀와 함께 한국어  
강의를 들어봅시다.



EBS 두리안(ebs.co.kr/durian) > 한국어 배움터

\*참조: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다문화학생 진로·진학 지도를 위한 교사용  
매뉴얼> 중 '초등학교 다문화학생을 위한 진로·진학 상담 및 교육 지도의 실제'

